SPRING 2011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54

www.plankorea.or.kr

행복을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좋은 계절에 후원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아나운서 오상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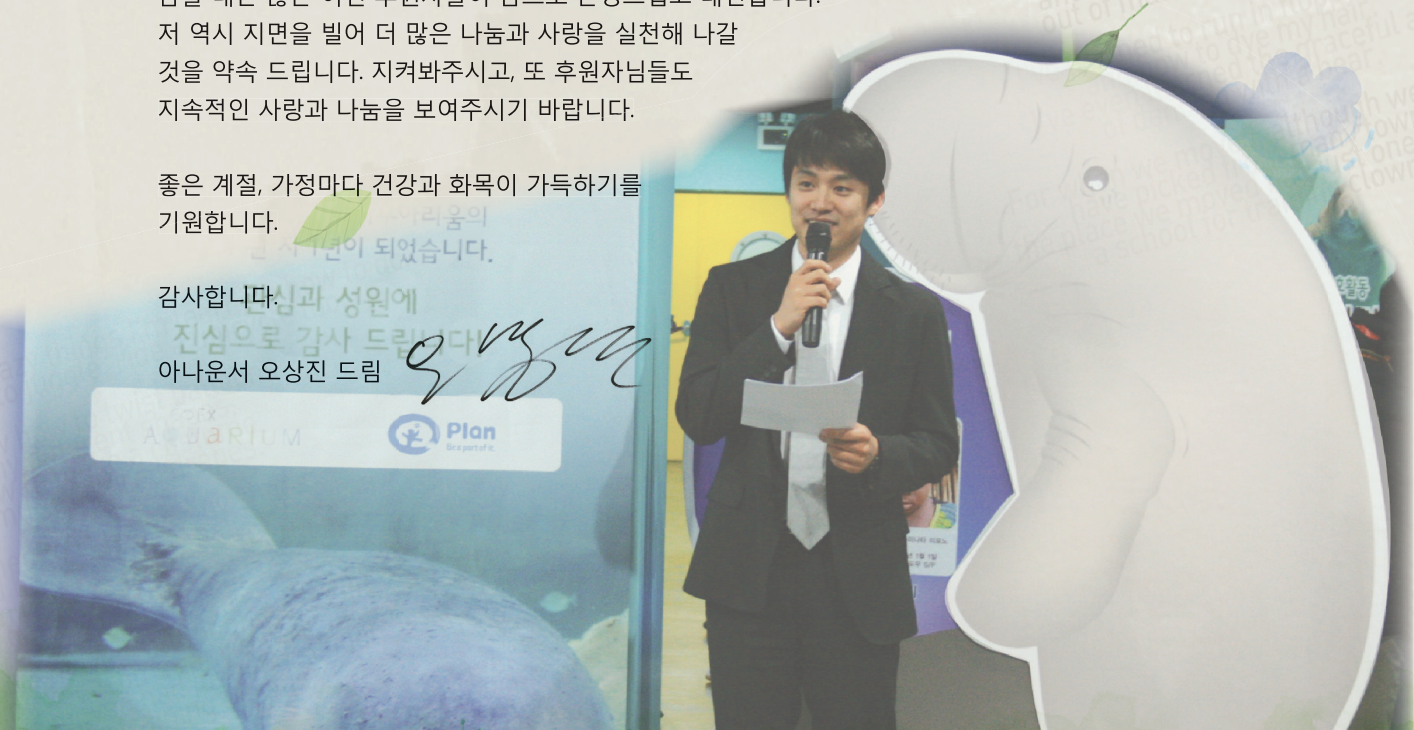
저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아무런 느낌이나 감흥이 없는 지루한 자리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 중에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자리는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 하는 사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 타인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가장 보람 있고 즐거운 자리에서 후원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플랜코리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년 전 "러브 콘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저 역시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그들과 너무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실천해오신 선배 후원자님들과 또 어린 나이에도 용돈을 쪼개서 후원금을 내는 많은 어린 후원자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견합니다.
저 역시 지면을 빌어 더 많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켜봐주시고, 또 후원자님들도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오상진 드림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54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 입니다.

플랜은 70년 이상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4 지구촌을 간다 I • 해피무브 6기 장은영

06 지구촌을 간다 II • 후원자 이지현

08 우리는 플랜가족 • 후원자 안상은, 안효일

10 Photo Essay

12 나눔의 행복 • 다음커뮤니케이션

14 세계 물의 날 캠페인

15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 이집트

16 Plan Board

18 알려드립니다

19 내일을 생각하는 플랜샵

플랜 NEWS

20 플랜코리아 소식

21 플랜 지구촌 소식

22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일시 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 후원금,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이집트, 넌 감동이었어!

카이로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낯선 공기와 함께 다가온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항 환전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어로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던 한 남자와 까만 히잡을 온 얼굴에 두르고 있던 여자.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고 똑같은 배낭을 메고 있던 우리가 신기한 듯 힐끔힐끔 쳐다보던 사람들. 내색하진 않았지만 낯선 풍경과 처음 맞닥뜨린 이슬람 세계에 나는 잔뜩 겁을 먹었다.
이집트, 앞으로 우리가 2주를 보내야 할 곳이었다.

"앗살람 알라이쿰!"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이집트 봉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플랜코리아와 함께 이집트에 파견된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어 6th October, 카이로남부, 그리고 깔루비아의 세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 중 우리 팀이 매일 오가던 깔루비아 마을은 카이로에서 차로 두 시간 가량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다. 아침 출근시간 꽉 막힌 카이로 시내를 벗어나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하천이 보였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속을 알 수 없는 시커먼 물, 그리고 그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인들. 내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이집트의 풍경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관광객들로 넘쳐날 이집트에서 과연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일까 내심 궁금했던 의심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깔루비아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플랜이집트의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하자 마을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수도 없이 되뇌며 외워간 아랍식 인사 '앗살람 알라이쿰'을 어렵게 입 밖으로 꺼내자 '알라이쿰 쌀람!' 이라고 어색한 내 인사에 대답해주었다. 천진한 얼굴로 처음 만난 우리에게 포근한 인사를 건네준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은 긴 여정으로 지쳐있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곳에서 머물던 시간 내내 이집트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켰다.

내 이름은 아미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플랜이집트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특히 청소년클럽의 활성화는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주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곳의 청소년들과 우리는 일정 동안 장애아동시설과 보육원이 함께 있는 깔루비아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의 개보수 공사를 비롯한 문화교류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묻어나던 첫날, 우리는 준비해 간 색종이와 서예도구를 가지고 이들과 함께 종이접기와 한국어로 이름쓰기를 했다. 너도 나

도 붓을 들고 화선지에 자신의 아랍어 이름을 적고 우리에게 달려와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한글로 적어달라고도 하고, 또 한국어로 된 이름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예쁜 한글 이름을 지어주니 답례로 우리에게 예쁜 아랍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나도 '아미라' 라는 예쁜 아랍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나를 '아미라' 로 기억하고 불러주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작은 변화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보육원의 개 · 보수활동을 시작했다. 카이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마을 곳곳은 갈 곳을 잃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그곳에서 나온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들로 널린 길거리에는 맨발인 채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더욱 상황이 열악한 깔루비아 마을 아이들의 자그마한 발 여기저기 부르트고 찢어진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원 모두 입을 모아 낸 의견은 우리가 솔선수범해 쓰레기를 줍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과 화단, 놀이터를 비롯해 보육원 곳곳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이들도 우리를 따라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그 다음날은 쓰레기봉지를 준비해서 한 곳에 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어느새 그들 스스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를 감동시킨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방문한 마지막 날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아 구입한 쓰레기통을 선물했다.

스무명의 팀원들이 작업하는 일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우리는 며칠 만에 외벽 사포질과 페인트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쁜 벽화를 그리는 일과 보육원 마당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모래와 잔디를 심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일하는 내내 주변에서 작은 일들을 함께 도와주며 그들의 말로 부르는 노래와 또 놀이들을 가르쳐준 마을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표정과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가까이 있는 것만 같다.

어느덧 헤어짐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모두 서로를 껴안고 몹시 울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마을을 떠날 때마다 그들에게 하던 "보꾸라"(내일 보자) 라는 인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가슴을 무척 아프게 했다. 모하메드라는 아이가 울면서 "보꾸라?"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저어야 했던 순간 그 아이 얼굴에 지어진 슬픈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처음에는 우리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러 간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받기만 했다. 그들은 내게 넘치는 사랑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주었다. 경쟁으로 가득 한 이곳의 생활에 닫혀 있던 내 마음을 열어 진심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 찰나와도 같은 시간들. 그 속에서 숨 쉬고 있는 나와 우리 팀원들의 뜨거웠던 나날들. 물질이 아닌 마음을 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나를 변화시켜준 그 곳 사람들. 모든 기억을 다 간직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내 가슴을 적시는 뭉클함과 애틋함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글=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6기 장은영〉
〈사진=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플랜코리아 후원자 방문기

네팔 THE 좋은 여행

마판푸르 여성조합을 방문해 예쁜 분홍색 BIAAGE티셔츠를 전달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채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모금된 지원금으로 네팔 어린이들에게 꿈가득 책가방을 안겨주었습니다.

Dhan Behadur Ghimire. 네팔에 살고 있는 열 세 살 된 잘생긴 나의 넷째 아들이다. 딸만 둘이라 이렇게라도 멋진 아들들을 세계 곳곳에 두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10년 전 파키스탄의 Azam을 첫 번째로 필리핀과 베트남에도 아들을 한 명씩 두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포장도 안된 도로를 구불구불 돌아 무려 5시간 여만에 단이 살고 있는 마판푸르 지역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함께 간 딸과 내일 만날 단의 가족에게 가져갈 선물을 챙겼다. 작년 베트남 후원자 방문 때 많은 조언을 들었던 터라 가져갈 물품과 현지에서 살 물품들을 잘 구분할 수 있었고, 선물을 뺀 텅 빈 여행가방과는 반대로 마음만은 너무나 뿌듯했다.

딸과 함께 플랜네팔의 차를 타고 통역을 도와줄 플랜네팔의 직원 2명과 단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단의 가족들을 위해 시장에 들러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포장이 안된 길을 또 20여분 달려 단이 사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아 이 동네에 사는구나, 다행히 평지구나, 마을이 제법 크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고 혹 거리에서 단의 모습이 보일까 싶어 100번도 넘게 본 사진을 만지작거리는데, 저 멀리 오토바이 위에 한 아이가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차가 스치는 순간 눈이 마주친 아이는 마르고 닳도록 보았던 바로 사진 속의 단이었다. 차가 집 앞에 서자 녀석은 매우 수줍게 웃으며 집안으로 쏙 들어가버렸다.

'아 드디어 왔구나' '여기가 단의 집이구나' 비행기로 7시간, 다시 차로 5시간 참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며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맞으며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마에 붉은 신두르를 찍어주며 환영해주셨다.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단은 부모, 형,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님 두 분이 나와 동갑이라는 이야기에 더욱 친근감을 느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무살이 된 누나는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가장이 된 형이 학교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염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버팔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너무 아팠다. 가족 수대로 칫솔도 사고 수건도 사고 슬리퍼도 사왔는데 아빠와 누나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 선물을 줄 때도 마음이 찡했다.

단은 씩씩해 보였던 사진과 달리 수줍음이 많아서 물어보는 말에 그냥 씩하고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지만 사진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긴 모습을 실제로 보니 그저 뿌듯하기만 했다. 남자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 지 몰라서 딸아이와 선물을 고르며 한참을 고민 했었고 그래서 고른 것이 축구공과 운동화였는데, 250사이즈의 운동화가 5mm 작아서 안 들어가는 걸 보고 어찌나 안타까웠는지...
지도를 펼쳐 한국과 네팔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몸짓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멀리서 왔다는 걸 안다는 눈빛으로 해맑게 웃어주었다.

마을을 방문하기 전, 마판푸르 플랜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원자들이 손수 만들어서 완성한 펠트 게시판! ECCD 어린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올망졸망 모여서 환영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Dhan의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점심준비를 해 주셨다. 부엌은 장작불 화로와 물통 하나, 선반이 전부였고 전통음식 달바트(쌀밥과 콩스프)와 감자볶음을 수북하게 쟁반 같은 데에 퍼주셨는데 그야말로 네팔의 가정식 백반이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너무나 맛있는 어머니의 밥상이었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비면 또 얹어주시는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서 마음이 훈훈해졌다. 우리 때문에 모처럼 쌀을 사와서 밥을 대접하였다고, 평소에는 밀가루로 된 빵 같은 것을 먹는다고 플랜네팔 직원이 귀띔을 해주었다.
점심 후 우리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단과 학교로 향했다. 장래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단이 다니는 학교는 어떨까 궁금했고 친구들도 보고 싶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선생님까지 한국에서 온 단의 후원자라며 반가이 맞아주셨고 반 아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인사도 나누었다. 친구들과 말썽 없이 즐겁게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아들 학교에 면담 온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 흐뭇해지기도했다.

2시간여의 만남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아마(엄마)와 디디(누나)가 먼 길을 왔다면서 너무 고맙고 꼭 다시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 그리고는 검정비닐봉투에 감자를 깨끗이 씻어 담아주셨다. 뭐 챙겨줄 게 없나 고민했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마음 저 밑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솟아올랐다. 던네밧(감사합니다) 이라는 말 이외에는 고마움을 표시할 방법이 없었고, 어머니와 깊은 포옹을 하며 '또 만나요, 또 올게요, 잘 지내세요'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과 포옹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이 되어라,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한국말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도 많이 도와드리렴."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잔소리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터졌다.

"엄마" 딱 한마디 가르쳐준 한국말, 아직도 귀에 단의 또렷한 목소리가 아련하게 메아리 치는 것 같다.

〈글= 이지현 후원자〉
〈사진= THE좋은여행 방문팀〉

Plan Family Interview

후원자 안상은 · 안효일

중국-몽골-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폴-방글라데시-네팔-인도. 14개월간 자전거로 11,600km를 달리며 아시아 12개국을 여행하다 잠시 한국에 머물고 계신 안상은, 안효일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보는 세계여행.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라는 길동무와 함께 시작된 꿈만 같은 일을 실천하고 계신 두 분에게서 그들이 겪은 여행만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로그에서 보던 여행지에서의 모습에 비해 얼굴에 조금은 살이 오른 모습으로 한국생활을 즐기고 계신 듯했습니다.

플랜코리아 후원자분들께 직접 본인 소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효일 상은 형님과 자전거 여행을 함께 한 덕분에 플랜의 여러 사업지역을 다니게 되었고, 새롭게 플랜의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 가족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계획했던 세계여행은 여기서 잠시 멈추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플랜의 후원자로서 새롭게 시작해보렵니다.

상은 우선 플랜과의 인연으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플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30대 중반의 철없는 소년이고픈, 그리고 앞으로 혼자서 조금 더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될 안상은 입니다.

자전거 세계여행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상은 스물여덟 첫 해외여행으로 갔던 인도가 너무 좋아서 그 후로 늘 친구들과 여행가자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자연스럽게 시들해져 버린 이야기가 저 만큼 철이 없었던 효일이와 다시 계획을 세워보면서 일이 구체화되고 그 규모도 커져버렸어요. 물론 말로만요.^^ "우리 세계일주할까?" "그러지 뭐" 그렇게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 경비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고민해 본 결과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이동비와 숙박비를 해결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여행이었어요. 단순히 이런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여행경비가 생긴다면 힘들게 자전거 타면서 여행 안하고 싶어요.(웃음)

1년 2개월의 여행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게 지난해 11월이죠?

상은 중국을 시작으로 14개월 동안 아시아 12개 나라를 돌면서 여행을 하고, 요새 한국에서는 걸리지도 않는다는 질병에도 걸려보고, 장비를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으며, 결국 서아시아 국가들의 비자문제도 있고 해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전거 여행이 몸은 힘들지만 제 자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낭여행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행이니까요. 행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거창한 세계여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꿈꿔오던 것을 이뤄나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1년씩이나 여행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여행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상은 6개월 정도까지는 이만큼 달려왔구나 하는 성취감이나 설렘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1년 가까이 되면 처음 가졌던 들뜬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체가 일상이 돼요. 돌이켜보면 그만큼 여행이 길어지면서 농축된 시간이 옅어지는 점도 있지만, 같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관계없다고 여겼던 주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하게는 그저 가능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졌던 목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면서… 사실 여기에서 노는 거나 나가서 노는 거나 별 차이 없거든요.(웃음)

여행 중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플랜사업지역을 계속 방문하셨잖아요. 후원자로서의 의무감 같은 이유도 있으셨나요?

상은 마음 먹고 하는 여행이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비야씨의 책을 읽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도 저희 블로그나 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비슷한 식의 도전이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 보는 일에 사람들은 웬만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기부나 나눔을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건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의 가까운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도 좀더 쉽게 생각하고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대놓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친구 몇몇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된걸 보면 제가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다녀오신 아시아지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 만큼 현지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본인에게서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 있나요?

상은 착해진 거 같아요.(웃음) 1년간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갈구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 식의 자극을 받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보이면 먼저 가서 도와주고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에서 비롯된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효일 플랜사업지역을 방문하면서 너무 많은 직원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한국 돌아가서 꼭 후원을 시작하겠다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여행자들이 돌아와서 NGO단체에 관심을 갖고 찾아 다니며 세계평화나 아동인권과 같은 말들을 입에 올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일이 돼요. 완전히 세상을 바꾼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굶고 있는 아이들이 한끼만 더 먹을 수 있다면 그 안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행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게 있다면?

효일 많은 여행자들이 외치는 사랑, 화해, 평화와 같은 것들이 가기 전에 습득한다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뭔가 얻기보다는 그저 자유롭게 여행 그 자체가 하고 싶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과. 하지만 확실히 변한 게 있다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람들의 감정자체만 대하고 돌아와보니 '단순해져도 되는 일들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고, 반대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은 여행을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건 어찌 생각하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단지 그 기회를 열어놓지 않는 것뿐이죠. "여기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만 제 일생의 꿈이고 바램이었던 것을 이루고 나면 어떨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직 종결되진 않았지만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나에게 아동후원이란?

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통장 잔고 빠지는 것만 확인하는 수준이 되던 찰나에 중국에 있는 후원아동을 직접 찾아가 만났던 것은 우리 사이에 가느다란 끈이 조금 굵어진 듯한 묘한 기분이 들게 했던 경험.

나에게 자전거란? 세계일주란?

효일 여행을 하면서 때로 매너리즘을 느꼈을 때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지저분해져도 자전거 타는 건 항상 좋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희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자체를 포기하진 않을 거에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안효일 후원자는 파키스탄과 르완다의 두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안상은 후원자는 3월 19일 다시 자전거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자전거 여행 블로그 http://realroadmovie.tistory.com

자전거 달린다

Beautiful today, Perfect tomorrow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조차 품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인스턴트 같은 감정이 아닌 뛰는 심장의 따뜻함처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속 깊이 빌어봅니다.

#1

몽골, 그 사막 속에서 · · ·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지 고작 1달 만에 몽고의 고비 사막을 달리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도전이었지만, 두 팔을 벌려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을 맞으면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도 모두 내 것이 된 것만 같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그 길을 달리는 두 대의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곳의 풍경. 하지만 그 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사람

#2.

중국, 후원아동과의 첫 만남

시안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춘화는 플랜중국의 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의 여행동무 상은이 형은 이곳에서 후원아동 류닝과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낯설기만 한 첫 만남의 어색함은 한 상 가득 가려진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라져갔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 류닝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3.

세계의 지붕, 그 아래 순수한 사람들의 마을

네팔의 순사리 지역에서 플랜코리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염소 사업장. 마을에 지원된 염소가 이곳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가져다 주고 있다니, 말 그대로 더좋은선물입니다.

#4.

행복 지수 1위, 인구 밀도 1위,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디나스푸르 지역의 마음씨 좋은 플랜방글라데시 직원들과 어린이들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에 지금도 마음 따뜻해지는 그곳의 기억. 방글라데시는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5.

No Problem, Amazing India!

몇 마디의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도는 말 그대로 amazing. 바라나시의 플랜인도 청소년 커뮤니티의 어린이들도 이곳에서 더 큰 꿈을 꾸며 자라가기를 바래봅니다.

《글, 사진= 안효일 후원자》

DaUm 다음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소개

팔레웰라 학교 아이들에게 내일을 선물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지어오고 있다.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에 이어 2010년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아 온 기부금으로 스리랑카에 다섯 번째 지구촌희망학교를 건립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학교건립기금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카페테리아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부터 연말바자회, 팀 회식비를 기부하는 등 학교 건립을 대한 다음 임직원들의 애정은 열정적이다.

이 작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월, 제 5호 지구촌희망학교로 선정된 스리랑카 팔레웰라 종합학교의 사진 한 장입니다. 얇은 나무기둥이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300명의 초등학생들이 옹기종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공간에 천막을 세워 교실로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우기 때는 수업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학생만 약 950명이 공부하고 있는 이곳 팔레웰라 종합학교에는 화장실도 단 2개밖에 없고 식수시설도 부족해 건강과 위생까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년의 기다림. 그리고 한번이 끝이 아니기에 더욱 기분 좋았던 만남

공사가 시작된 후 완공식까지 딱 일년.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만나게 된 우리를 위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식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꽃으로 정성스레 만든 목걸이를 일일이 걸어 줍니다. 양손에 스리랑카 국기와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학교건립을 모두 함께 축하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원하며 완공식을 갖고 학생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멀리 수도에서부터 찾아온 교육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 관계자들과 눈물을 글썽거리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건물 주변을 메우고 있던 학생들까지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교실과 식수대, 그리고 화장실

다음이 선물한 새롭게 지어진 교실에서 15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수도공사를 통해 세워진 식수대는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 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화장실이 6개가 추가로 신설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될 예정입니다.

알록달록 고운색 입은 스리랑카 초등학생들

새하얀 교복을 입은 스리랑카 학생들에게 다음에서 준비해 간 빨갛고 노란 단체복을 선물하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티셔츠를 선물하고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새 교실과 새 옷, 그리고 새 학용품이 아이들의 미래에 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또 하나의 만남

이번 완공식에 참가한 이병선 본부장(다음 기업커뮤니 케이션 본부)은 후원아동 사다루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 앞에 나서기 쑥스러운 듯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니 한국에서 온 키다리 아저씨의 방문소식을 플랜직원에게서 먼저 듣고 함께 심을 코코넛 나무를 준비한 곳으로 우리를 숲으로 이끕니다. 오늘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원자와 그 아동이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은 함께 있던 모두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코코넛 나무가 이만큼 커졌을 때쯤 다시 찾아와 달라고 말하는 사다루완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년 동안 다음인들의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우리가 받아온 것은 그 이상의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차를 따라오며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이 아쉽지만은 않았던 것은 더 많은 임직원들과 올해 다시 학교를 방문해 설레는 휴가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요, 팔레웰라 친구들!

〈글, 사진= 다음 사회공헌팀 이미연 사원〉

(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자'는 미션아래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의 임직원은 1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다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천만명에 이른다. 사회적 영향이 큰 인터넷 미디어기업의 책임을 잘 알기에 끊임없이 공익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다음의 역할이다.

세계 물의 날,
행복한 우물 짓기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주는 우물 건립에 동참해주세요!

약 70억의 세계 인구 중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고, 오염된 물과 비위생적인 환경이 일으킨 설사병으로 매일 5천여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널려 있는 배설물과 쓰레기는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페스트 등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 연못이나 강가 등에서 물을 긷는 여자아이들은 각종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으며 머리에 이고 가는 무거운 물동이는 성장발육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줄 우물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권리를,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는 건강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의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맑은 물**과 **밝은 미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세요!

지금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방문하셔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진행 중인 행복한 우물건립 모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플랜의 식수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지역에 식수펌프를 만드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플랜의 48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를 통해 후원국과 플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집트 (Egypt,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이집트의 기초 정보

국가명 : 이집트 아랍 공화국
수 도 : 카이로(Cairo)
인 구 : 약 7908만 9천 명
종 교 : 이슬람교 – 90%, 기독교 (콥트교회, 개신교) – 9%
언 어 : 아랍어
플랜 사업 시작 년도 : 1981년
교육제도 : 초등학교 6년, 하급 및 상급 중등학교 3년,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문 맹 률 : 29%
평균수명 : 71세
독립기념일 : 1922년 2월 28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시 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이집트의 현실

이집트는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아동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발효된 아동법에는 정부의 아동 권리와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 노동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빈곤율에서 비롯된다. 인구의 40%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학교 교육의 실패로 많은 아이들이 일터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집트의 교육환경

이집트의 교육제도는 6년제의 초등학교, 3년제의 하급 및 상급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또 중등학교는 하급·상급 외에 보통과정과 직업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HOT ISSUE

이집트 반정부시위 아프리카의 민주화 바람

2011년 1월 중순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다.

시위는 '부아지지' 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에 촉매제로 작용하였고, 1월 말부터 이어진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현재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여 군 위원회에서 민주화 이양과정을 밟고 있다.

이집트에서 플랜이 하는 일

베헤이라

- 인플루엔자(돼지, 조류) 예방 교육
- 여성들의 출생등록을 통한 권리신장
- 어린이들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재조성

알렉산드리아

- 저축 – 대출제도 도입을 통한 생활 지원
- 학생들이 학교 내의 체벌이나 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Learn Without Fear 캠페인의 지속적인 활동

깔루비아

- 마을 보건소에 최신의료 장비를 보급해 주민들이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여자아이들의 조혼과 할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 하수도시설 공사 및 교육시설의 개보수

기 자

- 유아보육센터를 통한 아동 교육 지원
- 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신장과 인식향상 위한 활동
- 후원국의 청소년클럽과의 방문 및 교류활동을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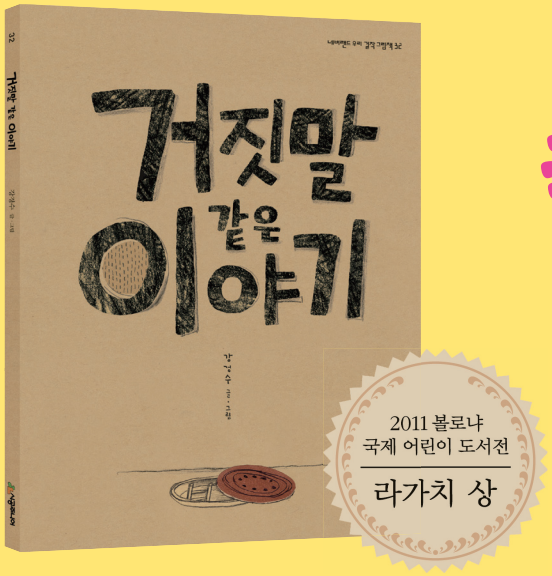
카이로

- 아동보호에 대한 캠페인 실시, 청소년 클럽을 통한 아동권리 향상
- 여성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다음 2011년 여름 소식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2011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논픽션 부문 라가치 상 수상!

시공주니어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



유아 대상의 인권 그림책

1959년 채택된 국제연합 아동 인권 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에게는 10가지 기본적 인권이 있다. 무차별 평등, 기회균등, 사회 보장, 우선적 보호, 학대 방지, 모든 착취에서의 보호,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 구조, 고아 및 기아의 수용 구호, 혹사 금지, 세계 평화에 기여함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매년 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어린이 도서전에서 수여하는 세계적 권위의 라가치 상을 받은 작품으로 작품성과 독창성, 예술성을 인정받은 아동도서이다.
작가의 기획의도에 맞게 인세 전액은 작가가 직접 후원하고 있는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코리아에 기부된다.

'작은 지구'를 꿈꾸는 작가의 마음

강경수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다른 모습을 지니고 다른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 지구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한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이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담백하게 전하면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힘든 현실을 짧은 글과 간결한 그림으로 전해, 유치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이 자신의 터전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아량을 키워 주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강경수 글.그림 | 판형 205×268 | 양장본 | 44쪽 | 9,500원 | 유치~초등학생 대상 | ISBN 978-89-527-6066-1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규모 9.0의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등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을 향해 전세계적으로 도움과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면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가옥과 건물들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플랜인터내셔널은 모든 후원국을 통해 일본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 모금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문화된 재난위기관리팀(DRR, Disaster Risk Reduction)은 일본 현지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랜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체적 ·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아동친화적공간을 조성해 사회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치료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무너진 일본의 어린이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세요!

플랜코리아 긴급구호 후원계좌 (예금주 (재)플랜한국위원회)

우리은행 581-187070-13-006

국민은행 815-01-0385-973

ARS(한 통화에 5천원) **060-700-1170**

* 사진출처: 로이터통신, CNN

Plan to change the world

2011 플랜코리아 후원자스토리 공모전

플랜코리아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후원이야기를 공모합니다.
그 동안 후원해주시면서 느끼신 생각과 경험들을 글, 사진, 그림, 일러스트,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플랜코리아 후원자 및 플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제 :

- 후원을 하면서 겪은 변화, 또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와 소감
- 후원을 하게 된 동기나 친구 또는 지인에게 플랜을 추천한 사연
-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희망이야기 등

접수방법 :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참가작품을 첨부해 이메일(letter@plankorea.or.kr) 또는 웹하드, 우편으로 제출
- 수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입니다.

유의사항 :

- 모든 참가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고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플랜코리아에 귀속되며, 참가작품은 향후 책자, 홍보물 발행 및 플랜코리아 관련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문 의 :

플랜한국위원회 후원관리팀 ☎ 02) 790-5436 E-mail: letter@plankorea.or.kr

※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천 하나. 납부방법을 지로에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해 주세요.

실천 둘. 기부금 영수증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천 셋.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후원자님께 전달해드리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변경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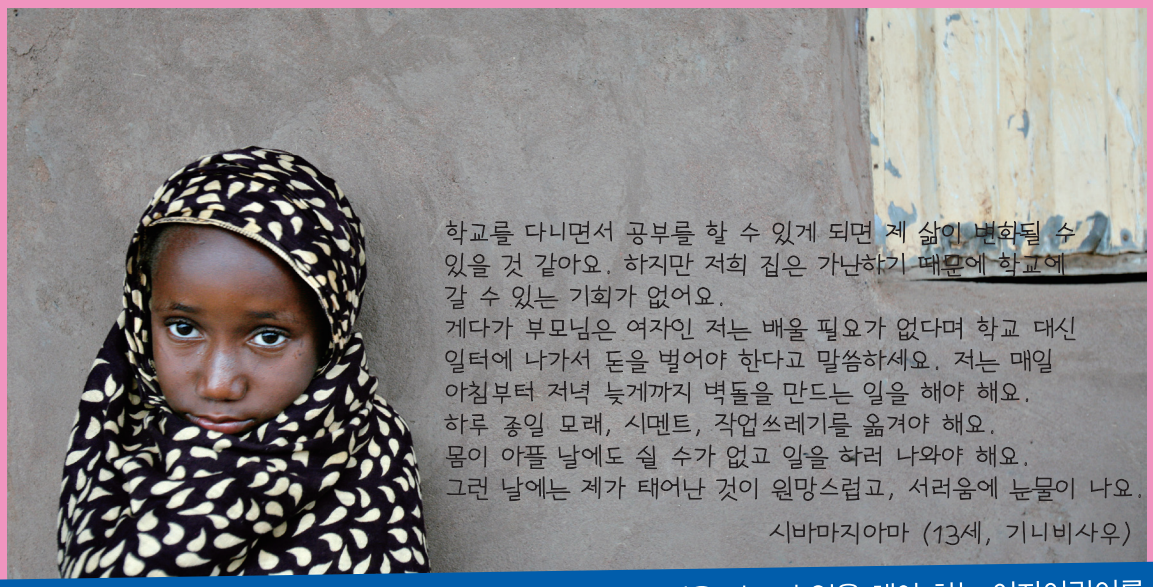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 납부방법변경 및 홈페이지 ID 등록 문의

☎ 02) 790-5436 E-mail : kno@plankorea.or.kr

내일을 생각하는 플랜샵

"너는 내게 소중한 걸girl"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제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여자인 저는 배울 필요가 없다며 학교 대신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해요.
하루 종일 모래, 시멘트, 작업쓰레기를 옮겨야 해요.
몸이 아플 날에도 쉴 수가 없고 일을 하러 나와야 해요.
그런 날에는 제가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요.

시바마지아마 (13세, 기니비사우)

시바마지아마와 같이 거친 공사현장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을 해야 하는 여자어린이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불행하게도 이 같은 사례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바마지아마는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내몰린 수백만 명의 여자어린이들 중 한 명입니다.

플랜은 여자어린이들이 빈곤과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여자어린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가정경제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 여자어린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며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랜과 함께 해주세요.

Because I am a girl
에코백 28,000원

Because I am a girl
텀블러 23,000원

Because I am a girl
티셔츠 18,000원

Because I am a girl
시계 15,000원

플랜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문의 플랜샵 02)516-5107 www.planshop.co.kr

플랜코리아 소식

삼성건설 임직원, 일대일 아동 결연후원 협약

삼성건설은 임직원 해외아동 일대일 결연후원을 협약하는 기념행사로 보다 의미 있는 후원의 시작을 위해 희망의 신발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개발도상국에서 신발이 없어 발에 깊은 상처가 나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신발은 사용하지 않는 요가매트를 이용해 직원들의 손길을 통해 직접 만들어졌다. 삼성건설 임직원들은 결연이 맺어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베트남 제2호 롯데스쿨 완공

2009년 베트남 꽝아이주에 건립한 제1호 롯데스쿨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박쟝주에 건립 중이었던 제2호 롯데스쿨이 지난 2월 25일 완공식과 함께 제2호 롯데스쿨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롯데백화점은 2층짜리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운동장을 정비하고 새 울타리를 마련하는 등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개교기념식에는 롯데백화점 베트남사업부문장과 지역정부 관계자와 현지 언론, 학생들, 학교 및 플랜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새로운 학교가 생긴 것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R, 제3,4호 프로그레시브 스쿨 건립 협약

EXR 코리아는 캄보디아에 건립한 1,2호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에 이어 캄보디아에 3호 스쿨과 베트남에 4호 스쿨을 세우기로 지난 2월 협약식을 가졌다. 교육적으로 낙후된 캄퐁참 주 담바에 지역에 건립될 3호 스쿨은 약 450명의 중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4호 스쿨은 베트남 꽝드리 주 따롱 자치행정구에 건립되어 화장실, 도서관도 없는 부족한 시설과 건물 붕괴의 위험에 노출된 2개의 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13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선물할 예정이다. EXR은 지속적인 교육사업 후원을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계속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고등학교, 캄보디아 건립 우물 방문

44명의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난해 성남고등학교에서 지원한 우물이 있는 씨엠립 지역의 타 소암 마을과 콕 찬 마을을 방문해 어린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풍물놀이, 태권도 공연 등을 펼치며 한구의 문화를 알리고, 비눗방울 놀이와 이벤트 등을 펼치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남고등학교는 2007년부터 플랜을 통해 매년 두 개 이상의 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물 사업 지원 및 5차 문화교류 방문을 펼칠 예정이다.

플랜클럽 5기 발족

2008년 1기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리고 나눔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플랜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5기가 지난 2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발대식을 가졌다. 한 해 동안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계층과 일반인들에게 전세계 빈곤구가의 기아와 질병,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알릴 뿐만 아니라, EXR-플랜클럽 활동을 통해 고아원방문, 낙도프로젝트 등 국내 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티땅콩,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온라인 모금 진행

소셜커머스 사이트 티땅콩(www.t-ddang.co.kr)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플랜코리아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후원하는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다. 빈곤구 여아와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생활 개선을 위한 온라인 모금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되었고, 최근 소셜커머스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모금의 확대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모금을 통한 티땅콩의 수수료 기부금은 개발도상국의 고통 받는 여자 어린이를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플랜 지구촌 소식

파키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

지난 여름 대홍수가 파키스탄을 강타한 직후 플랜은 대피소, 식량, 식수 및 위생키트 등의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통해 30만 명을 지원하였다. 피해지역의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플랜은 남부 펀자브 지역에 위치한 5만8천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플랜과 인터렉트 월드와이드(Interact Worldwide)가 함께 펀자브 지역에서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홍수의 여파로 인해 10대 결혼율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관습은 수천 명의 여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플랜의 전문가들은 경고하였다. 또한 피해를 겪은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식량지원과 거주지를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삶을 재건하고 지원위한 도움의 손길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홍수피해를 겪은 콜롬비아

수 천명의 콜롬비아 인들이 역사상 최대의 홍수 피해로 식량과 거주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플랜 콜롬비아 대표 가브리엘라 부처는 "이번 홍수로 인해 어떤 지역의 상황은 15년에서 2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32만 채 이상의 가옥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상당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삶의 기반을 잃었고, 농작물들이 홍수로 인해 모두 쓰러졌다. 당장 먹을 식량조차 구할 수 없다." 라고 심각한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플랜은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인 볼리바르 사무소에 있는 가족들에게 의복 및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식량, 식수, 요리 기구 및 위생 키트를 나누어주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혼란에 빠진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각종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에 위협받지 않도록 아동친화적공간을 조성해 보호하고 있다. 전 지역에 걸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급성 설사, 호흡기질환, 뎅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대한 대책과 예방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여성의 날 100주년, 여전히 고통 받는 여자어린이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세계의 여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와 어린 나이로 인한 '이중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여아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아직 많은 일들이 실행되어야만 한다. 여아들을 위한 기회와 인식의 부족은 가장 시급한 문제에 속한다. 어느 연구조사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여아의 인생에 큰 약점을 남긴다고 한다. 실제로 빈곤지역 대부분의 여아들은 남자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영양실조와 기아, 질병의 위험을 겪는 반면 그들에게 교육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아 7명 중의 1명 꼴로 15세가 되기 전 결혼을 하는 조혼의 악습이 존재한다. 플랜은 차별 받는 여아들의 권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9월 22일을 세계 여아의 날로 지정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라오스 소수 민족에게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라오스 종족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오룸족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는 소수 민족 보케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플랜은 2009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등록률의 46%만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에게 직업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학력조건이다. 지역개발담당 인턴으로서 플랜에서 일하는 3년간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며 수당을 받는다. 플랜은 계속해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턴십이 끝나는 3년 후 NGO, 정부기관 및 지역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일시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후원금

일시후원금

강경민	100,000	이상익	2,000,000
강경수	2,000,000	이영래	200,000
강학준	520,000	이은경	20,000
김동건	10,000	임정연	50,000
김병호	50,000	전철호	27,000
백경오	120,000	정보영	1,240,000
엔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150,000	정보인	50,000
우리파이낸셜	200,000	조석희	60,000
이나래	30,000	황지원	70,000
이든샘	50,000		

긴급재해

김정희	10,000
김한기	50,000
신업공동체	100,000
엄채윤	5,000
정주리	10,000
최진우	10,000

인도네시아

건국대 김다솜	755,240

모금함

리베라프론트	87,020
자바씨티서현점	167,670
오킴스브로이하우스	19,640
리베라사우나	81,640

온라인 모금 (12월~2월)

해피빈	6,659,600
싸이월드	173,200

▣ 내 생애 가장 따뜻한 선물 모금액 ▣

학습교구	710,000
아프리카 과실수	990,000
이동도서관	1,150,000
총계	2,850,000

THE 좋은선물과 함께 하신 분들

김혜성, 안승희, 이명선, 윤순희, 이윤옥, 이희원, 김동욱, 전세라, 곽재영, 소리치자, 이정민, 김택천, 김형민, EUST, 이상엽, 장혜진, 박경순, 김준식, 이명성, 서정아, 최진호, 문상진, 김범수, 최수미, 서아름, 이명선, 이영숙, 정우람, 안정형, 최연섭, 김나연, 우은주

현재까지 모금액 (2011.2.28 기준) 20,494,183원

네팔 염소 보내기	2,950,000원
수단 양 보내기	9,985,083원
캄보디아 어린이 도서관 짓기	7,559,100원

[문의] ☎ 02-790-5436 / E-MAIL : kno@plankorea.or.kr

특별 후원금

이상호	경기도	김언경	부산시	김재훈	경기도	이정미	서울시	장경아	경남	김용규	충남	김민재	광주시	남혜선	경기도	이윤혜	경기도
황승현	서울시	이유옥	제주도	최형주	서울시	조성제	경기도	이지연	서울시	곽효근	경기도	백평순	광주시	박준규	인천시	김진아	경기도
황경선	경기도	정우석	서울시	서수경	부산시	김진선	경기도	강우석	경기도	김태훈	경기도	황슬기	경기도	양성열	서울시	이은정	광주시
신유영	경기도	이상숙	서울시	최지원	서울시	한아름	경기도	류연정	대구시	나설희	서울시	박찬용	서울시	정진주	경남	박기병	서울시
황정열	부산시	허경은	강원도	한진희	대구시	박찬석	경기도	김태호정숙민재	서울시	한현진	전북	최소연	경기도	강정화	전남	성하영	경기도
류현정	경남	지동한	인천시	김나리	서울시	현주희	제주도	류진아	대구시	오대환	대구시	김태욱	서울시	박철민	전남	한정의	경기도
이지원	서울시	정유경	서울시	김관중	경기도	최현진	울산시	김영주	경기도	남유희	부산시	백용탄	서울시	이진희	서울시	현화진	전남
최인숙	서울시	류근영	서울시	손상기	충북	박혜숙	서울시	진춘근	인천시	박혜영	전남	정명규	경남	김현영	전남	최재희	경기도
남효성	대구시	이해인	서울시	김정아	부산시	김경영	전북	윤정민	경기도	주혜정	서울시	박한결	경기도	변석의	서울시	정연욱	경기도
김종우	경기도	공주	부산시	조은영	서울시	이재경	충북	김주희	서울시	박재현	경남	김윤주	서울시	신영지앤씨(주)	경기도	조영란	서울시
최재중	경기도	장금자	부산시	오경민	부산시	전일경	부산시	박은정	서울시	하승연	충북	박영단	전남	조두영	경남	박효점	부산시
이채원	서울시	김정대	경남	김지영	경남	김정혜	강원도	장재홍	경기도	조은영	서울시	고가연	서울시	예계화	부산시	이강명	서울시
유다연	전북	이훈규	서울시	성희진	부산시	배다은	대구시	김연중	서울시	허은영	경남	박근영	대구시	우슬기	경남	이경미	경상도
류상호	경기도	박주혜	서울시	이숙영	서울시	김원유	대전시	백호연	강원도	김미숙	대구시	송주미	전북	김관후	대구시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김현지	부산시	홍지나	경기도	한지혜	경기도	정승배	서울시	김진형	서울시	정채리	경기도	박정진	경기도	송민아	서울시	김명숙	충남
최별	경기도	김석관	부산시	김명은	전남	이언주	경남	유지연	서울시	하예린	서울시	천소혜	충남	이민웅	경남	하성필	서울시
김수연	경기도	최지혜	경기도	김나현	서울시	강영주	경기도	박진주	서울시	제정원	부산시	임순옥	충남	강현우	경기도	전영록, 전연운	전북
윤은진	경기도	김민솔	경기도	봉하연	서울시	조영미	경기도	박계림	경북	이화희	경기도	서상화, 김혜향	대구시	권수연	경북	김선화	울산시
박수정	경남	장제임	서울시	이영혜	부산시	양지연	대전시	김청	부산시	곽채령	대전시	강승연	서울시	이제란	서울시	이창재	서울시
김진주	대구시	조성찬	경남	이세근	경기도	김동현	서울시	김미진	울산시	박현정	경기도	엄규보	강원도	이러원	경기도	김민영	서울시
정혜선	부산시	김경희	경기도	강연희	경기도	유영재	부산시	임선형	충북	송영호	서울시	신유선	경기도	신승연	경남	양정상	전북
문선영	서울시	정노석	경남	김민지	서울시	정지애	서울시	류규진	서울시	성현용	부산시	김자정	부산시	김영찬	경기도	김수진	서울시
최형규	경기도	김지원	서울시	하현찬	광주시	이연옥	경북	이선애	서울시	오진숙	인천시	류영준	부산시	권태호	울산시	신나정	서울시
최송이	부산시	서중율	부산시	곽연임	경남	최경자	경기도	신지희, 김일윤	대구시	윤연희	서울시	이진수	경기도	이승태	인천시	민영준	서울시
서지아	서울시	김윤주	서울시	하호연	광주시	최보람	충북	서동규	서울시	박경찬	서울시	오혜민	서울시	김별	대구시	홍영민	서울시
강현진	경기도	이석종	서울시	배소영	경남	박영복	서울시	전영균	경기도	조윤성	경남	김수민	서울시	이홍숙	서울시	정수진	서울시
김재범	서울시	박수현	경기도	김상남	경북	우유준	경기도	백경훈	경남	이왕순	서울시	서유리	서울시	선운희	경기도	김민수	서울시
이보람	경기도	박신희	경북	임화성	서울시	정우리	경북	정용근	서울시	양현주	서울시	김영만	서울시	주수진	서울시	강새롬	서울시
박준성	충남	노병화	전북	이주현	서울시	강혜연	서울시	방고운	부산시	김정민	서울시	원성호	서울시	정병진	인천시	김민제	경기도
이재연	경기도	서승근	경기도	권진아	울산시	김보람	서울시	김정수, 권은주, 김수경	경기도	김혜성	서울시	유지영	경기도	전혜원	서울시	김현일	서울시
박성은	서울시	손지원	서울시	오경식	충남	송미림	부산시	조세희	강원도	손홍오	경기도	허정현	서울시	손민희	인천시	강주현	경북
김소영	전북	박성우	경기도	김나현	경기도	남연아	경남	최자영	울산시	윤보람	서울시	김아람	경기도	진연지	서울시	홍영실	경기도
최은화	경기도	윤보현	충북	김보미	경기도	황호진	경기도	김연아	전북	김수연	서울시	김승화, 김근혜	대구시	이용복	경기도	최예준	서울시
진인은	서울시	김호준	부산시	신은혜	서울시	이재석	인천시	김정미	경기도	박미선	대전시	우혜인	경기도	나석호	충남	서수림	울산시
최지인	경북	권보미	경북	김정란	경기도	전영흔	경기도	김동하	서울시	송민석	대전시	정보라	전남	김해영	서울시	조국래	부산시
김우진	충북	김수현	서울시	안정숙	경기도	전지혜	경기도	이희성&임미선	경기도	김지훈	경기도	김동혁	서울시	이미정	경북	김혜정	서울시
장익선	경기도	김지혜	경기도	김정환	서울시	곽지현	서울시	강수진	부산시	김미애	서울시	이지오	서울시	진철수	경남	홍승기	경기도
한보람	인천시	정지영	경기도	이지혜	인천시	이운희	서울시	장진원	울산시	신혜미	서울시	김지영	서울시	황인영	부산시	김용태	울산시
최다솜	서울시	빈주이	인천시	백정호	서울시	전재은	경기도	문옥민	경기도	국승민, 김지영	서울시	임지은	경기도	장종섭	경기도	정윤창	서울시
최수희	경기도	이철	서울시	강주미	강원도	엄지은	서울시	강영아	인천시	강동완	경기도	성가희	서울시	이동희	서울시	서상원	울산시
김태욱	서울시	심성희	인천시	이경훈	대구시	이정민	서울시	천익만	경남	심해영	서울시	구동환	서울시	고성준	서울시	최선호, 이근중	대전시
공희주	서울시	강제현	경북	강윤철	부산시	천보배	서울시	이형주	서울시	박현지	서울시	이동민	경북	이정화	서울시	김승경	서울시
김영실	서울시	전유선	서울시	이귀향	제주도	이민선	경남	안진수	서울시	김세기	서울시	어소윤	부산시	김영훈	경기도	고철진	경남
지영희	제주도	조혜연	경기도	서하나	서울시	이진병	전북	이승연	대구시	이관형	충남	박향숙	경기도	최정민	서울시	김광훈	서울시
최경아	경기도	임지민	서울시	최은수	서울시	김은정	경기도	이준호	인천시	곽윤기	서울시	한상미	경기도	이혜림	경기도	주상규	대전시
최경전	경기도	안원철	경북	김남석	전북	김태림	부산시	이선경	경기도	문경미	경기도	민은영	경기도	서울시	김은지	서울시	최경준	경기도
이가람	강원도	임형진	서울시	이은경	경기도	이성근	경기도	이지은	서울시	윤수현	서울시	여성칠	경기도	지기남	경기도	송문희	경기도
정혜진	서울시	정영도	울산시	이성희	서울시	왕지웅	서울시	심경섭	경기도	박동현	대전시	선종민	부산시	윤지환	부산시	여상옥	경남
류경민	울산시	김현주	경기도	최영하	서울시	김윤정	서울시	김도원	서울시	김미경	서울시	백승재	경기도	김아림	강원도	조정태	서울시
황교식	서울시	김노을	경기도	조익준	경기도	김종의	서울시	김경미	서울시	박일규	부산시	이보름	경기도	이정원	충남	박영매	충북
박혜진	서울시	신혜진	전남	김학종	서울시	김수민	대전시	신순옥	충남	김승모	경기도	정동민	서울시	김재영	서울시	박점숙	서울시
최나래	서울시	연진주	서울시	심혜진	서울시	박소영	충남	이유진	서울시	조은호	충남	오민준	경기도	이정환	경남	반수웅	서울시
이철구	인천시	김미진	경기도	김동석	서울시	박수경	서울시	이광영	경남	서정운	서울시	이항나	서울시	김수경	서울시	정다은	충북
오미경	경북	이보옥	서울시	최희정	경기도	이주영	경기도	이동욱	경기도	최은경	서울시	최훈	부산시	이지수	서울시	윤재오	서울시
박민지	서울시	홍수아	서울시	임수미	서울시	이정원	경기도	이효길	서울시	정덕주	대구시	김경희	서울시	조은아	광주시	배경욱	서울시
손연미	서울시	임이랑	경기도	이유나	서울시	주선웅	경기도	이유진	경기도	정인주	대구시	문혜원	경기도	이정은	서울시	안창균	경기도
장준호	대구시	구윤모	경기도	조민이	경기도	김명미	대구시	최종선, 이재은	경기도	박점수	경북	권소연	서울시	선우수은	서울시	김미연	서울시
이서리	전남	신동호	서울시	최유수	경기도	김창섭	경기도	모세은	서울시	채승훈	서울시	이원근	강원도	홍진수	서울시	유영빈	경기도
임해민	경기도	박효연	서울시	최철호	경기도	박미정	서울시	김종원	경기도	이고은	대구시	조윤민	경기도	최숙희	서울시	정우리	인천시
김현석	충북	김도영	서울시	이민규	충북	정운석	부산시	박송이	경기도	곽수경	전북	전지혜	인천시	배원교	서울시	명수영	서울시
김연정	경기도	서민애	경기도	오진서	충남	박소정	경북	이지현	경기도	곽예은, 이철원	인천시	정수희	부산시	김정선	서울시	한만형	경기도
김민지	제주도	성유진	경기도	김지영	경기도	허미라	경북	하재성	서울시	윤석영	서울시	강은영	제주도	김지은	서울시	이윤정	경기도
김충일	서울시	이상엽	서울시	김혜주	경북	홍석현	경기도	백용준	강원도	정영우	서울시	정준철	인천시	송민정	경기도	조보경	서울시
김태현	경기도	최윤성	서울시	이정미	경기도	정희정	서울시	박성환	부산시	최인숙	서울시	허윤호	경기도	배선영	울산시	최윤경	부산시
엄정애	서울시	정유진 Dakar – Plateau		고해숙	강원도	김숙자	서울시	정소현	경기도	김동규	경기도	최수혁	경기도	조정은	서울시	정혜란	경기도
허경원	경기도	김세영	경기도	심은진	경남	이종철	충남	송지은	서울시	오명진	서울시	이명애	경기도	박상욱	경기도	김명균	서울시
권해인	서울시	박성영	전북	최진하	충남	최여진	서울시	엄채윤	서울시	김지윤	경기도	윤지윤	경기도	최예훈	부산시	최재걸	서울시
신상일	경기도	박세림	부산시	권은주/이성호	서울시	석진켄 석수민	경기도	김성훈	서울시	윤광배	광주시	김미현	부산시	김화자	경기도	박수찬	서울시
양지혜	서울시	김미나	경기도	신상미	서울시	김봉순	충남	김나경	서울시	중부대학교중부우수리 나눔회	충남	윤보영	서울시	안도화	경기도	이준녕	경기도

2011년 11월 말 ~ 3월 초 신규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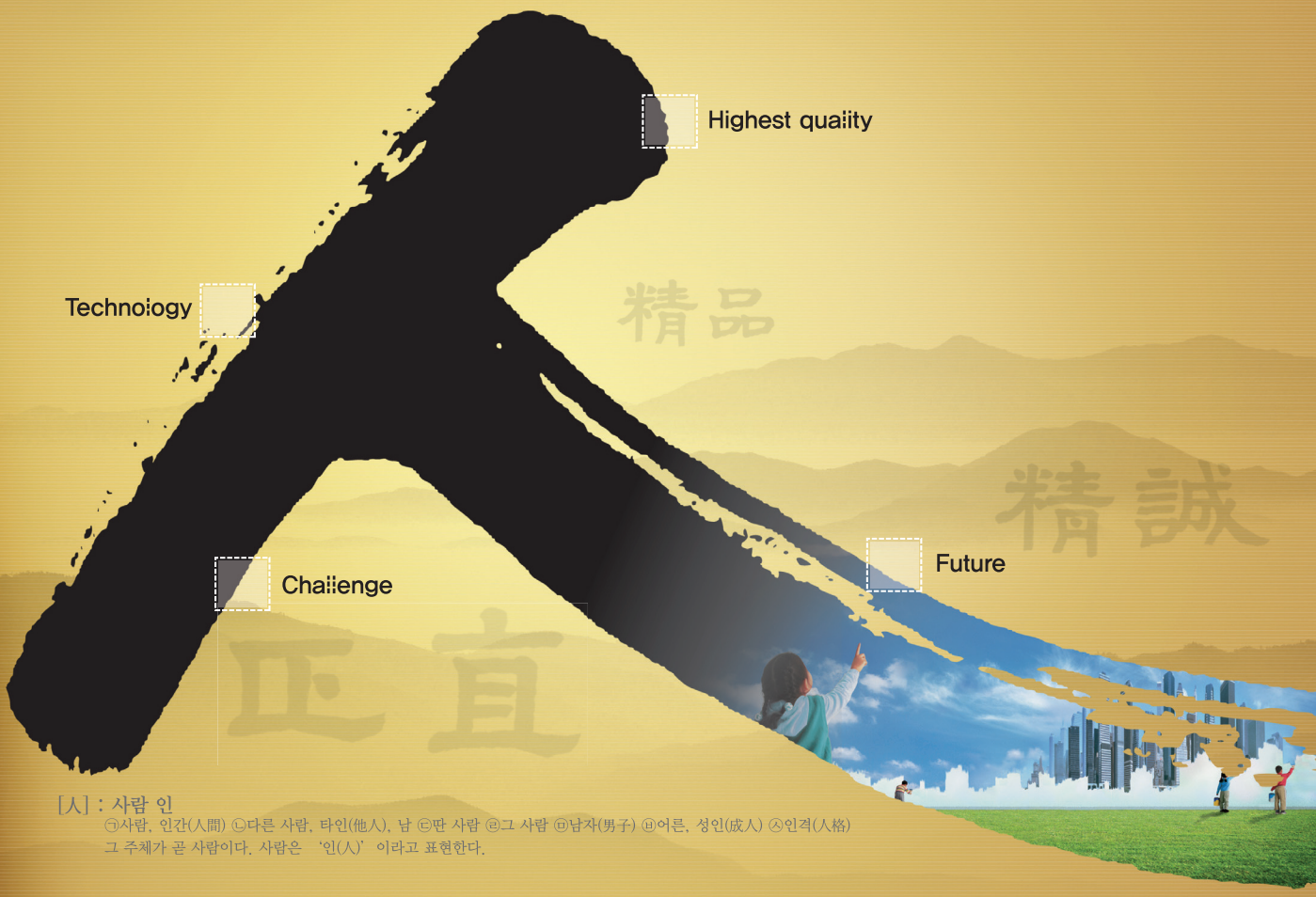
이은실	충남	김기남	인천시	정한조	경남	정희교	부산시	신승재	울산시	방상택	울산시	라수정	대구시	박하나	경기도	박민서	서울시
박상미	서울시	정덕진	서울시	김태정	경기도	이양배	경기도	김초록	전북	이동철	서울시	권희성	경기도	박생이나	경기도	정은혜	서울시
육영아	서울시	이병민	대구시	이미란	전북	이인영	서울시	오탁균	서울시	강영희	부산시	손효준	부산시	정혜경	경기도	김혜영	서울시
박세원	서울시	손지연	서울시	한정규	경남	유소희	서울시	한우영	부산시	장세정	부산시	신상협, 정미나	서울시	황가람	전북	주유진	서울시
박윤지	광주시	김은경	경기도	조현규	전남	박수현	서울시	홍민아	경기도	조은희	경기도	김태범	경기도	박솔하	서울시	이은철	서울시
이명건	서울시	민병석	서울시	진은영	서울시	조성미	서울시	노태식	충남	유승호	제주도	박현숙	서울시	김선진	경기도	이보라	서울시
권소영	경북	민병훈	경기도	서경은	서울시	조성윤	서울시	나화란	광주시	이승현	대구시	권정관	경기도	안주연	충북	송지은	서울시
한상대	서울시	오민진	서울시	서명수	광주시	태은주	서울시	손성현	경기도	조성식, 박혜성	경기도	황영	대구시	김효정	경남	태혜영	서울시
전은진	경기도	이에스더	경기도	박상용	울산시	노선영	서울시	이현희	경기도	조희은, 조용준	경기도	송시현	강원도	모순희	서울시	백영균	대전시
김서은	충북	장문실	경북	심은영	울산시	김민희	인천시	장윤정	서울시	김민우	경기도	박은주	경기도	김범식	경북	태현식	서울시
노유미	경기도	박미나	경기도	김서우	경기도	유영신, 김선진	광주시	문혜란	서울시	조범진	경기도	김민재	경북	곽태복	서울시	김지언	서울시
오혜영	서울시	임호	강원도	김희운	경기도	고정희	부산시	진현경	서울시	윤지원	경기도	예미진	부산시	하솔가나	인천시	박서광	서울시
윤규식	인천시	김동욱	울산시	정대연	전북	임홍철	서울시	안현경, 박영수	경기도	이애리	대전시	안지수	서울시	박미선	서울시	김지연	서울시
안지영	충북	김은선	경기도	이석원	경북	이서현	전북	윤유선	경기도	이민수	서울시	유주혜	경기도	성상근	대전시	윤수현	경기도
김의현	서울시	유민혁	서울시	김수경	대전시	임희선	경기도	김동수	서울시	강상현	경남	황경수	충북	김소연	서울시	노재현	경기도
서유경	서울시	김규석	서울시	최설희	경기도	권상운	서울시	김혜진	서울시	임상혁	서울시	유은애	서울시	정호순	경남	강하은	경기도
이소연	인천시	허진혁	서울시	김초희	서울시	김인영	경기도	이윤상	충남	윤선아	경남	성지원	대전시	심현정	경기도	김지오	경남
장윤미	충남	이경정	서울시	이범기	광주시	김지희	경북	윤성훈	광주시	오대일, 홍지혜	충북	최소영	경기도	김도준	서울시	유서영	서울시
한솔님	경남	김한솔	대구시	원준호	경기도	박수정	경기도	홍성민	경기도	이정미	서울시	정하늬	전북	성지용	전북	소다미	서울시
문대중	전북	진은정	울산시	하정민	부산시	최초희	경기도	염아람	서울시	한송이	서울시	김지혜	전남	박지혜	대구시	신형래	대구시
구강림	서울시	임정현	전남	신성미	부산시	정미숙	경기도	이희숙	대전시	최미선	부산시	정해미	서울시	김정은	광주시	김현숙	부산시
구태희	서울시	안현정	경남	이승연	서울시	권정아	경기도	이상범	강원도	김광휘	제주도	백연주	충남	진희경	부산시	김슬기	대구시
류태열	충남	박경탁	경기도	정지연	경기도	조용욱	서울시	이보현	충남	송창석	경기도	오지은	광주시	강승구	서울시	이정균	경기도
김재모	인천시	김명현	대전시	이지애	서울시	김지현	경기도	이혁	서울시	신시내	경기도	김지예	경기도	박충규	서울시	임선경	서울시
박지현	부산시	정영주	경북	이명순	경기도	이지범	전남	이유진	서울시	이동기	대전시	전길수	강원도	장승진, 서윤정	서울시	김민주	경기도
심미형	충남	한정현	서울시	이성미	경기도	조현진	경기도	이정숙	인천시	이정국	대전시	양주혜	서울시	이득규	경기도	이준석	충남
송호정	서울시	김성이	경기도	김선미	경북	구미경	서울시	우리파이낸셜	서울시	김광기	대전시	최순호	서울시	이현주	전북	권선영	경기도
최황근	경기도	김재철	경기도	권보현	경북	마지영	서울시	옥현숙	서울시	김용식	대전시	박아영	강원도	김미리칸	서울시	송지은	대구시
유영주	서울시	서희주	대구시	최윤정	대구시	심승섭	경기도	김상우	서울시	송연실	대전시	이미옥	경남	이희성	경기도	최일주	강원도
이대철	서울시	박정윤	대구시	TrueEyes 김남걸	인천시	신해성	서울시	이상훈	광주시	박소현	부산시	정다운, 이현정	서울시	박영	충남	박민희	부산시
박은진	경기도	범지인	경기도	윤미정	경기도	이혜림	경기도	현진우	제주도	이태연	전북	김수민	경기도	박서연	경남	정혜경	부산시
천영숙	전북	정진현	서울시	고진철	경기도	박종구	광주시	최장미	서울시	이순애	서울시	유병로	대전시	윤아름	서울시	박선영	충남
정윤정	부산시	배은지	대구시	강효묵	서울시	이서율	서울시	김애진	서울시	권혁주	강원도	고인애	서울시	강민혜	경기도	김경미	부산시
김지은	인천시	권혜경	서울시	허혜숙	서울시	이모필	충북	정은정	서울시	김진희	경기도	이문호	인천시	기유경	서울시	김봄이	서울시
곽호신	경기도	최정오	서울시	고현정, 김한별	경북	장윤제	인천시	김경호, 오미혜	경기도	윤범진	서울시	주은영	경기도	김미영	대전시	김예은	충남
김보영	서울시	최지은	충북	최효희	경기도	최병문	부산시	강유경	서울시	정희나	부산시	조재용	대전시	정호석	대전시	김슬아	경기도
김상근	경기도	김쥬리	서울시	정구영	서울시	황석중, 장선경	서울시	설은표	경기도	박재자	경기도	이준영	서울시	우차현	광주시	권현도	경북
차유성	경기도	부용식	제주도	김항녕 (파고다)	경기도	신효주	광주시	김별하나	경기도	이유미	서울시	권한나	충북	황문철	서울시	김동희	서울시
차제성	경기도	박상훈	서울시	장윤정 (파고다)	서울시	이항주	경남	최혜정	대구시	정가영	전북	구영혁	경남	권나윤	경남	신은정	서울시
이슬기	서울시	신현지	경기도	배다연 (파고다)	서울시	함영임	강원도	서정아	서울시	염현주	강원도	구영환	경남	유태경	서울시	김원준	서울시
임지숙	서울시	황정희	전남	정세호 (파고다)	서울시	송애경	광주시	김보라	서울시	조유미	부산시	박지원	경기도	이현우	경기도	배솔아	부산시
강봄	울산시	김정미	인천시	우여름 (파고다)	서울시	최지현	경기도	김순희	서울시	송우리, 박재걸	서울시	이영주	서울시	홍선영	경기도	조현일	서울시
박진우	서울시	이보람	인천시	박소영 (파고다)	서울시	신환규	서울시	주인혜	경기도	이주영	경기도	박주희	서울시	이혜림	충북	송가영	서울시
윤재식	인천시	장호형	서울시	장재밤 (파고다)	서울시	김세훈 추현주	경기도	전수철	울산시	김혜정	서울시	문병일	인천시	박지수	경남	김진성	
안옥희	서울시	노현진	서울시	신명원 (파고다)	경기도	김나윤	대전시	김지은	부산시	박혜실	서울 강남구	심명원	전남	조현희	경기도	장상두	대구시
성은엽	경기도	임성아	서울시	김수현 (파고다)	서울시	송재현	경기도	김우용	서울시	지정림	대전시	문지연	부산시	김태훈	서울시	황두원	울산시
박태규	경기도	엄유미	경기도	구경임 (파고다)	서울시	제소영	서울시	김은숙	서울시	박희철	경북	정위현	경남	박일한	대구시	강지예	경기도
문진혁	서울시	김선미	서울시	최예진 (파고다)	경기도	박진여	경기도	황규원	서울시	이미라	강원도	이지현	경기도	정민애	서울시	김하리	서울시
정인혜	서울시	길시유	부산시	이장우 (파고다)	서울시	황은미	경기도	이성화	광주시	장복만	충남	방재혁	경기도	송하나	인천시	신효은	대구시
주한솔	서울시	권은경	경기도	우노 히토미 (파고다)	서울시	김정수	서울시	김지은	경기도	김현우	서울시	함지혜	경기도	고성훈	서울시	정일광	전남
박재현	충남	이연경	서울시	박노승 (파고다)	서울시	정수길	서울시	서영애	전북	설미영	서울시	정승호	경남	박민지	경기도	양춘석	강원도
신동영	경기도	손아현	서울시	박경원 (파고다)	서울시	이규범	전남	이상훈	서울시	김현경	경기도	손난영	광주시	오수백	부산시	이진우	경남
하수정	대구시	이민지	전북	로라 홀 (파고다)	서울시	성정선	인천시	이기민	충남	장은희	경기도	강태희	경기도	이경희	서울시	권미경	서울시
이승희	경남	천세준	경기도	빈자민 스미스 (파고다)	서울시	이연재	서울시	이기웅	전북	노희숙	서울시	김보경	서울시	최슬빛	서울시	김현영	부산시
김은영	경기도	이인규	경기도	데이비드 홀린저 (파고다)	서울시	이승준, 최린아	서울시	송선영	충남	김지훈	전남	박미영	부산시	장경민	경기도	김은화	서울시
손지혜	경기도	최영지	경북	글렌 데니에슨 (파고다)	서울시	복혜진	서울시	이현경	경기도	김예현	충남	류성미	경기도	강정민, 강정은	서울시	박선영	경기도
이성환	대구시	이은수	경기도	조셉 유나악 (파고다)	서울시	구유순	경기도	손지혜	경기도	김민주	경남	엄한결	서울시	윤예은	인천시	안미영	부산시
한신아	인천시	송아람	충북	이선풍 (파고다)	서울시	노혜경	강원도	송아령	경기도	홍주영	경기도	강인숙	경북	장영수	경기도	유영환	경북
이현정	부산시	박미경	대구시	신용학 (파고다)	서울시	유영은	경기도	장연주	서울시	우승희	서울시	김범수	울산시	유덕배	경기도	송지연, 이우동	서울시
이정윤	서울시	김미선	서울시	박수정 (파고다)	서울시	정수임	서울시	황정아	경기도	최민영	인천시	이가은	경북	한수인	서울시	박정은	서울시
윤준근	경기도	한재철	서울시	이선아 (파고다)	서울시	김희연	경기도	김지홍	서울시	문승균	서울시	송용화	대전시	김원영	경기도	박성복, 신애영	대구시
오은정	인천시	박효은	경기도	양윤정 (파고다)	서울시	김미경	경기도	이선영	인천시	김다솜	서울시	강진화	경남	이지안	서울시	홍익인간	경기도
정현이	부산시	장준우	경기도	한고운 (파고다)	서울시	권명자	경기도	송원진	서울시	이영아	서울시	김민정	경기도	유정화	경기도	허종강	서울시
이주아	서울시	최성우	서울시	김상아 (파고다)	서울시	조광형	경기도	박인희	서울시	안소정	서울시	안명성	서울시	이진우	전북	조효정	부산시
정민경	경기도	김예슬	부산시	송지영 (파고다)	서울시	나소정	서울시	정미하	부산시	위형철	경남	김주영	서울시	신은정	대전시	박범규	인천시
강진아	경기도	최영륜	충북	데이비드J (파고다)	서울시	김혜림	전북	배은애	서울시	윤경선	서울시	김하린	경기도	김성아	광주시	박하연	광주시
곽승현	서울시	윤지현	서울시	왕윤선 (파고다)	서울시	김승수	서울시	안병태	서울시	김혜리	서울시	장이주	경기도	정예지	서울시	한소희	인천시
안선민	경기도	정분홍	경기도	박경아	서울시	박민경	경기도	김은지	경기도	박슬기	경기도	오재규	전남	이승찬	서울시	송승규	울산시
백승재	경기도	김형석	서울시	이아진	경기도	김상한	대전시	문정미	인천시	최자윤	경북	황인아	경기도	전수연	서울시	음보은	부산시
안예슬	경남	장서희	서울시	박지혜	서울시	김빛나리	전북	하나모임	서울시	오슬기	대전시	황재왕	인천시	박은주	경기도	강민지	서울시
박혜림	서울시	박한규	경기도	김경아	광주시	박선미	서울시	오현나	서울시	팽예리	울산시	이민경	서울시	김세현	대구시	이태민	전남
김완섭	경기도	이민규	부산시	윤형치	서울시	최명규	전북	한용석	경기도	정몽운	강원도	김지민	경남	양효민	경기도	서혜진	경기도
김미리	인천시	유태욱	서울시	안영만	경북	김영국, 박옥자	부산시	김수정	부산시	김은경	인천시	신윤아	서울시	이상훈	대전시	인우빈	인천시
장우석	서울시	이동건	경북	신재림	전남	이은빈	대구시	심재희	서울시	정유진	서울시	이영민	충북	김혜정	서울시	김화임	부산시
김정선	경기도	이동욱	경북	이원미	부산시	이도병	서울시	이혜정	서울시	박은경	서울시	김아름	서울시	이홍주	서울시	박영선	경기도
백기철	대구시	김좌경	경기도	김광진	서울시	신나희	경남	이병국	서울시	김석	서울시	김정자	강원도	손진희	서울시	김인양	경기도
정인숙	서울시	신정은	서울시	이윤식	서울시	이광현	경북	박혜미	경기도	김아름	경남	류필선	충북	서혜인	경남	박매훈	경북
고문석	인천시	김윤희	광주시	서유미	서울시	류주현, 류다연	울산시	정재희	서울시	강민아	경기도	민경환	서울시	최재원	경기도	윤우성	서울시
이영지	대구시	송윤정	충남	오세주	경기도	류다혜, 곽선자	울산시	유관희	강원도	강준기	경기도	정우진	서울시	박여민	부산시	김동주	서울시
이다래	서울시	강한나	경기도	김성진	서울시	박정숙	충북	송우석	경기도	허내인	서울시	황영준	서울시	우병국	충남	이가영	경남
윤재영	경기도	조문채	서울시	배진희	충남	임충희	경기도	김정임	인천시	김지연	서울시	한지욱	충남	서효주	경남	김병법	인천시
지태근	경기도	유병수	경기도	신광섭	경기도	최현선	대전시	손원락	경기도	김유리	대구시	송윤서	서울시	조영윤	광주시	장은영	인천시
정은선	부산시	김효성	경기도	강상문	서울시	윤지해	충북	경창호	경기도	정동현	서울시	이서영	서울시	이아라	서울시	이용숙	서울시
박정옥	서울시	노승찬	서울시	김효영	대전시	손진희	경기도	김장래	서울시	강신화	대구시	김미희	광주시	신혜연	서울시	이아라	경기도
변수연	서울시	박경아	경남	김기문	경남	이재실	인천시	이부연	서울시	전나영	경북	송정화	서울시	손광진	서울시	박유미	서울시
신석현	경기도	김지영	서울시	임형준, 안소라	경남	명계순	경남	신인아	경기도	이영환	부산시	김삼수	경북	이슬기	충북	김연수	서울시
김미리내	서울시	박정희	경기도	박향원	경북	최민경	서울시	이미란	경북	이현	서울시	이륜아	서울시	최경아	경기도	이정은	충남
남월호	경기도	이명철	서울시	권대주	광주시	임태균	서울시	조원경	충남	장윤희	서울시	이강석	서울시	손혜영	경남	서현지	경기도
정현숙	인천시	최현정	서울시	주백	서울시	김다희	인천시	오경호	인천시	고인영	경기도	김현실	광주시	최지혜	광주시	유은지	대전시
백정민	광주시	이세령	서울시	서아름	전남	강지광	경기도	서기석	대구시	박동희	울산시	임선영	경기도	김명선	경기도	김광명	서울시
임상욱	경기도	권민아	대구시	라영선	경기도	안사이	서울시	이슬비	인천시	배은진	서울시	김가영	경기도	양수영	제주도	김연정	서울시
최희정	경기도	이미숙	대전시	오지윤	충남	남소현	서울시	이선미	경북	한상일	경남	이선영	경기도	김혜연	경북	이상직	충남
황지영	부산시	김영희	경기도	오북용	서울시	한지혜	서울시	김윤희	경기도	손정승	서울시	이은정	경기도	최선영	서울시	배하온	경기도
이효진	서울시	배수진	서울시	한통엽	서울시	추연주	서울시	진혜원	부산시	김민아	대구시	이경환	서울시	엄주필	서울시	최윤경	서울시
강현주	서울시	박미연	서울시	김만철	대전시	이석현	경기도	설유경	경남	박빛나	서울시	송희정	인천시	정용설	강원도	용준형	서울시
조남수	서울시	오현경	경기도	진소희	경기도	김태우	서울시	김보연	경기도	이가영	경기도	정우희	서울시	유송이	서울시	서민아	경기도
최인배	서울시	김새미	충북	진동민	경기도	손주희	서울시	조세진	서울시	금동은	강원도	김미선	경북	심재준	경남	최대현	서울시
한현정	서울시	이일형	부산시	강수연	경기도	박재연	서울시	김영숙	부산시	김형수	경기도	류수린	411027	채유민	경기도	오형석	경기도
김준영	서울시	조윤숙	서울시	유정은	경기도	한다연	경기도	임성준	서울시	이현호	경기도	양원희	대전시	김유미	울산시	김영호	서울시
유병선	대전시	김성우	전남	성희은	서울시	유현수	경기도	홍나리	대전시	이문경	서울시	정용호	대전시	황세일	서울시		
김삼열	서울시	김종욱	제주도	강동섭	서울시	김성리	부산시	김택열	경기도	한정이	경북	이상근	경기도	조유진	부산시		

• 2011년 봄호 • Vol 54 • 발행일_ 2011년 3월 28일 • 발행처_ 플랜한국위원회 • 발행인 및 편집인_ 노영찬 • 홈페이지_ www.plankorea.or.kr
• 주소_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135-870) • TEL_02-790-5436 • FAX_02-790-5416 • 디자인·인쇄_성산인쇄 02-2268-1689

www.seoyeong.co.kr

"꿈이 있는 미래설계, 함께하는 서영"

2011년 9월 광보디아 서영드림스쿨(SEOYEONG Dream School)완공 예정



[人] : 사람 인
㉠사람, 인간(人間) ㉡다른 사람, 타인(他人), 남 ㉢딴 사람 ㉣그 사람 ㉤남자(男子) ㉥어른, 성인(成人) ㉦인격(人格)
그 주체가 곧 사람이다. 사람은 '인(人)'이라고 표현한다.

New Vision

서영엔지니어링(The Best Engineering Company)

진취적 변화와 도전,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납니다.
인간의 삶의 질과 편리함, 쾌적함을 기본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 감리로 고객 감동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서영엔지니어링을 통해 미래와 먼저 만나십시오.

seoyeong
ENGINEERING

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 TEL 02--6915--7000 FAX 02--6915--7007